

204위 송영한, 세계 1위 꺾었다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오픈 우승...스피스 1타차 따돌려



1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 클럽 세라퐁 코스에서 재개된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영한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프로 데뷔 후 첫 우승 한국·일본서 준우승만 6차례

‘어린왕자’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이 세계골프 1인자 조던 스피스(미국)를 따돌리고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204위인 송영한은 1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세라퐁 코스(파 71·7398야드)에서 재개된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오픈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

이로써 송영한은 무섭게 추격하던 스피스(합계 11언더파 273타)를 1타 차로 따돌려 2013년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다.

2011년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프런티어투어에서 상금왕에 오른 송영한은 2013년 정규투어에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만싱웨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2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공동 2위에 오른 것은 물론 항상 웃는 얼굴로 ‘어린왕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또 상금 11위로 신인왕(명출상)을 거머쥐었다. 송영한은 그해 한국 랭킹 100위 안에 든 가장 나이 어린 선수이기도 했다.

2014년 카시오 월드 오픈 공동 3위, 미즈노 오픈 공동 9위 등 일본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일본 투어에 뛰어들었다. 던롭스릭스 오픈과 JGTO 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

지했고 시즌 상금 14위(5997만2148엔·약 5억6800만원)로 JGTO 최우수신인상을 거머쥐었다.

한·일 양국에서 최고의 신인으로 인정 받았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한국에서 3번, 일본에서도 3번 등 준우승만 6번 했다. 그런 그가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무관의 설움을 맛쳤다.

싱가포르오픈은 전날 최종 라운드가 약전후로 지연되면서 대회 일정을 하루 넘겨 전역 경기를 치러야 했다.

송영한은 전날 16번홀(파4)에서 4m 거리의 부담스러운 파 퍼트를 남기고 클럽 하우스로 돌아와야 했다. 이때 스피스는 18번홀(파5)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기고 경기를 마친 상황이었다. 송영한이 2타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홀에서 보기를 하고, 스피스가 버디를 한다면 순식간에 동타가 될 수 있었다.

1일 속개된 경기에서 스피스가 버디를 하고 경기를 먼저 끝냈고 송영한은 16번 홀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1타차 선두를 유지한 송영한은 남은 2개홀에서 타수를 끝까지 지켜 세계골프랭킹 1위 스피스를 따돌리는 파란을 일으켰다.

스피스는 2015년 마스터스, US오픈 두 개에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5승을 올리며 확실한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선수다. 지난 1월 PGA 투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으로 새해를 열었던 스피스는 이번 싱가포르 오픈에 초청료 120만 달러를 받고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 총상금은 100만 달러였다. /연합뉴스



LPGA 출발 좋다

김효주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

올림픽 출전 경쟁서도 유리한 고지...김세영 2위

김효주(21·롯데)가 2016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르며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효주는 1일 바하마 파라다이스의 오션 클럽 골프코스(파73·662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쓸어담아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합계 18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김효주는 우승 상금 21만 달러와 함께 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했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김효주를 위협했지만 2타 뒤진 공동 2위(16언더파 276타)에 머물렀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세영(23·미래에셋)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9번홀(파4)에서 나온 더블보기에 발목이 잡혀 루이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와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2014년 메이저대회 예비암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 투어 정회원 자격을 얻은 김효주는 2015년 3월 파운더스컵에서 정상에 올라 ‘골프 천재’라는 명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느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체력에 문제를 드러내 시즌 후반기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신인경쟁에서도 김세영에게 밀려 신인왕을 내쳤다.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강자의 면모를 되찾았고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권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

다. 지난주 세계랭킹 10위인 김효주는 이번 주에 7위에 올라섰다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전반에 버디 4개를 골라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12번홀(파3)에서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단독 선두로 올라선 김효주는 13번홀(파4)에서는 4m짜리 버디 퍼트, 14번홀(파4)에서는 1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3타차 선두를 질주했다.

대회 코스 중 가장 어려운 16번홀(파4·397야드)에서는 그린을 놓치고 2m 남짓한 파퍼트를 넣지 못해 보기를 적어냈다. 이 사이 루이스가 15번홀까지 5타를 줄이며 1타차가 됐다. 그러나 김효주는 17번홀(파3)에서 우승에 췌기를 막는 결정타를 날렸다. 티샷을 홀 2.5m에 떨어뜨린 김효주는 지체없이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루이스와 격자를 2타로 벌렸다. 18번홀(파5)에 올라선 김효주는 파를 지켰지만 17번홀에서도 타수를 줄이지 못한 루이스는 세 번째 샷이 홀을 빗나가면서 동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김효주는 “톱10이 목표였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매우 기쁘다. 2타차로 앞서 있었지만 18번홀에서는 다른 선수가 2승을 할 수 있는 홀이어서 긴장이 됐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일희(28·불빅)는 15언더파 277타로 공동 5위, 권민지(25·JDX멀티스포츠)는 14언더파 278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FC가 1일 시청에서 구단주인 윤장현 시장(오른쪽부터), 대표이사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기영욱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 FC 제공>

중흥건설, 광주FC 5억원 후원

광주·전남 향토기업인 중흥건설이 광주 FC에 2년 연속 5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 잔류 및 팀 창단 최다승을 이룬 광주를 격려하고 올 시즌 상위스플릿(6강)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흥건설은 향토기업으로 유일하게 2011년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광주에 17억원을 후원했다. 또 광주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각종 수당 지원 및 워크숍 개최, 후원회 지원에 나서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정원주 사장은 “회사 차원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구단의 발전을 위

해 적극 나서고 싶다”며 “광주는 단순히 시민구단의 가치를 넘어 지역민들의 자부심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가 선전한다면 광주시민들의 활력소로 자존감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클럽하우스 건립 등 속원과제 해결을 약속하며, 성적향상에 더욱 힘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가 보여준 K리그 클래식 승격과 잔류, 팀 창단 최다승 달성 등은 시민들에게 큰 활력소가 됐다”며 “클럽하우스, 연습구장 건립 등 선수단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백승호 바르셀로나 후베닐A 데뷔골

백승호(19)가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백승호와 이승우(18)가 선발출전한 바르셀로나 후베닐A는 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5-2016 스페인 프로축구 디비시온 데 오노르 그룹III 사라고사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팀 동료인 이승우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 먼저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백승호가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 골망을 가르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승우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뚫었으며 백승호의 골 찬스를 만들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9분과 38분에 2골을 추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백승호는 팀이 2-1로 앞선 후반 16분 교체됐다.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후베닐A 복귀 이후 세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승우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홈에서 사라고사전 승리!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승리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